



제8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덟번째인 92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2천1백66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편, 금상 2편, 은상5편, 동상10편, 장려30편 등 총 4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이번호에는 은상3편과 동상2편을 소개한다.



우유를 마시자

김선희

대구 반야월 국교 6년

“야! 짬뽕아?”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 등교길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는 자주 듣는 나의 별명이었다. 언제나 ‘짬뽕아’ 아니면 ‘짬상’이라고 놀릴때면 나도 질세라 ‘훤둥이’라던가 ‘백새야’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나중엔 남 학생과 여학생이 갈라져 서로

“여자가 짬뽕이면 시집도 못가.”

“시집 안가면 안갔지. 너한테는…….”

“

하면서 혈뜬는 소리로 교실안은 수라장이 되곤 하였다.

그동안 짬뽕이란 별명을 가진 나는 우유를 먹어서인지 지난 학기말에는 ‘미스 6학년’에 뽑히는 영광을 차지했다.

”

그러던 어느 날 실과 시간에 “여러분, 오늘은 기초 식품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여러분께는 가장 좋은 단원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여 실천토록 하세요.”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뒤에 기초 식품군을 골고루 먹어야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또 우리 인체도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는 적게 먹으면 산성 체질이 되어서 피부색깔이 검게되고 반대로 고기는 적게먹고 채소를 많이 먹게되면 알카리성 체질이 되어 피부가 희게되고 건강에 좋아 국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 값싸게 영양가 높은 알카리 식품인 우유를 많이 먹도록 권장한다는 말씀에 귀가 번쩍 띄어나는 그날 집에 와서 ‘과연 선생님 말씀대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알카리성 체질이 되어 검은 피부가 희게 될까?’하고 거울을 보며 고민을 하던 중 저녁식사 시간에 학교 공부한 얘기랑 나의 고민을 얘기했더니 아빠께서

“여보, 우리 공주의 고민을 해결해 줘야지? 내일 부터 우유받아 먹도록 하고 학교우유도 받아먹게 해.”

하시는 말씀에 다음날 부터 우유를 먹기 시작했으나 처음엔 비린내도 나는것같고 소젖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조금씩 마시는데 그때마다 거울에 비치는 내 검은 얼굴을 보게되면 오기로 꼭참고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억지로 한달쯤 먹다보니 차츰 입맛이 붙게되어 이제는 식사후엔 꼭 물대신 우유를 마시는게 습관화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봄부터는 거울을 볼때면 나 자신은 물론, 5학년때 같은 반 친구들도 만나게 되면

“선희 너 몰라보게 고와졌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도

“우리 공주님 얼굴이 아주 예뻐졌어 우유를 먹어서 그런가?”

하시는 말씀을 곧잘 듣는다.

그러다 지난 학기말에 ‘미쓰 6학년’에 뽑히고 나서부터 거울앞에만 서면 ‘과연 우유가 좋긴 좋구나! 이 다음 내가 결혼하면 아들 딸들에게는 무조건 우유를 마시게 하여 나와같은 별명은 다시 불려지지 않게 해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값싸고 영양가 높은 알카리성 식품 “우유를 마시자!”하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우유로 맺어진 우정

최명진

강원 삼척 국교 6년

‘덜그럭 덜그럭 쿵’

무엇인가에 부딪쳐 떨어지는 소리가 창 밖에서 크게났다. 나는 언뜻 깨어 귀를 기울이니 자전거가 넘어지는 소리인 것 같았다. 창밖을 보니까 어떤 남자 아이가 떨어진 우유를 줍고 있었다.

“누구길래 저렇게 우유를 담고 있지?”

궁금한 마음에 열린 층계를 내려왔다. 어디 많이 배달을 한 모양이다. 이마에는 우유빛 뽀얀 땀방울이 새벽빛에 비쳐 빛났다. 나는 그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떨어져 있는 우유를 주워주었다. 그 아이는 놀랐는지 고개를 들었다. 내 또래인 듯한 아직한 어린 아이가 무슨 이유로 이른 새벽에 우유를 이집저집 배달하고 있을까? 자꾸 궁금해 졌다. 그렇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름마저 물어보지 못하였다.

그 아이는

“고마워”하며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학교에 가서도 생각이났다. 계속 그 떨어진 우유와 그아이의 땀방울이 아른거렸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수업을 하던 모든 시선이 문으로 갔다. 선생님께선 앞문으로 나가셨다. 세진이가 창으로 슬쩍보더니

“신입생이야”

하고 말했다. 저마다 아이들은 수근대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선 잠시 후 전학생을 데리고 교실로 오셨다. 나는 그 전학생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할머니인 듯한 분의 손을 잡고 온 그 아이는 다름아닌 아침에 우유를 배달하던 아이였다. 우리는 서로 눈길이 마주치자 멋쩍게 웃고 말았다. 형훈이는 내 앞 자리에 앉았다.

“야, 우유친구”

난 반가워서 나지막하게 불렀다. 형훈이는

“너 우유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니?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난 그 별명이 맘에 든다.”

하며 익살을 떨었다. 나는 무척 명랑하게 자란 아이구나하고 생각했다.

형훈이 덕분에 요즘은 매일 일찍일어난다. 그건 이 아파트 동만이라도 함께 돌려주기 위해서이고, 또 오늘은 왜 우유를 돌리고 있는지 묻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동네, 저동네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녀서 온 몸이 흠뻑젖은 형훈이에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

우유친구 형훈이,
부모님이 안계셔서
어두운 구석이 없지
않지만 나를 튼튼하
게 해준 그와의 우
정은 변치않을 것이
다.

나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같이 도로를 달렸다. 그리고 시원한 우유를 마셨다. 엄마가 몸에 좋다고 억지로 먹는 그런 우유와는 맛이 달랐다. 많게만 느껴졌던 것이 단숨에 꿀꺽꿀꺽 넘어갔다.

즐겁고 상쾌한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선생님께선 형훈이의 전학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셨다. 가져오다 슬쩍 내려다본 나는 괜히 봤다는 후회감에 젖었다. 그건 ‘세대주 사망’이란 말 때문이었다. 그전 처럼 형훈이를 바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우유배달을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우유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앙상한 몸에 키만 멀대같이 큰 형훈이가 오늘따라 더 말라보인다.

”

집에서 나는 “엄마, 우리도 우유 받아요. 네? 엄만 우유가 몸에 좋다고 그러셨잖아요.”하며 투정을 부렸다. 엄마께선 의아한 표정으로 계시다가 내가 꼭 먹고 싶다면 두개만 받도록 해 주셨다. 나는 얼른 형훈이에게 우리집도 우유를 받는다고 말했다. 형훈이는

“억지로 먹을 것까지는 없는데…”

미안해 하는 형훈이에게 “아니야, 엄마가 받으라고 하신걸”하고 아무 것도 아닌 듯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선 꼭 형훈이를 생각하며 우유를 꼭 먹는다. 그리고 우리 둘의 우정은 더욱 두터워졌다.

앞으로 몇달만 있으면 중학교로 헤어질지 모르지만 덕분에 키도 많이 자랐고 몸도 튼튼해 졌다. 비록 부모님이 안계셔서 어두운 빛이 그늘진 구석이 있긴 하지만 언제나 밝고 명랑한 우유로 만난 형훈이의 우정은 변치 않을 것이다.

우유배달 때문에 만난 형훈이에게서 받은 튼튼한 몸과 아름다운 마음을 영원히 잊지말아야겠다.

“우유친구 고마워.”

조용히 외쳐 본다. 싱그런 햇살이 방안을 가득 메우고있다. 아름다운 우리의 우정같이 밝게…….

고마운 우유

박현아

서울 월천 국교 2년

“너는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도 곱고 뽀얗니?” 오늘 아침에도 들은 소리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인사말처럼 생각된다. 특히 우리 큰어머니께서는 나를 보실때마다

“현아는 피부가 고와서 한 인물났어”하시면서 부러워 하신다.

나를 만난 어른들마다 피부가 곱다고 하신다.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너는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피부가 고운거야”하셨다.엄마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나는 우유를 아주 좋아한다.

내가 아주 어렸을때 우리 엄마 젖이 모자라서 우유랑 섞어서 먹었다고 한다. 태어난지 8개월부터는 완전히 우유만 먹었다. 어렸을때 너무 튼튼해서 외할머니께서는 내가 비만증이라도생길까봐 걱정을 많이하셨다고 하신다. 그러나 지금은 튼튼하게 잘자라서 7살때 학교에 입학해 학교에 잘다니고 있다. 8살때 입학한 친구들만큼 키도 크고 뼈도 굵고 튼튼하다.

다른 아이들보다 발표도 씩씩하게 잘하고 그림도 잘그리고 공부도 3등안에 든다. 나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

그 모두가 고마운 우유 때문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모두 학교에서 급식으로 우유가 나온다.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200밀리 우유 마시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목마른 것도 없어진다.

“우유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젖소야, 너는 더 고마워. 아주아주 고마워.” 공부가 끝나도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부터 열어서 또 우유를 꺼내 마신다.

내가 유치원에 다닐때 딸기우유와 초코우유, 치즈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른다. 또 도시락 싸 갈때도 치즈와 초코우유, 딸기우유를 꼭 썼다. 지금도 치즈를 좋아한다. 우리 아빠, 엄마, 동생 그 다음은 우유일 것이다.

아이스크림, 치즈, 쿠키과자, 요구르트,버터, 카스테라빵 등이 모두 우유로 만든 것이다.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우유는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데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단백질, 지방, 칼슘, 피부가 곱고 뽀얗게 되는 비타민까지 들어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삼국시대에 젖소에서 짠 우유를 마셨다고 한다.

“

우유대장인 내동
생은 잠자기전에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 밤마다 이불에
지도를 그리기 일쑤
다.

”

우리집 식구들은 모두 네 식구인데, 우리 아빠께서는 새벽 6시에 회사에 가시기 때문에 우유만 한 컵드시고 가시고 우리 엄마는 우유가 변비를 없애주신다며 주무시고 일어나서 바로 드신다.

핫케익을 만드실때도 카스테라를 만드실때도 돈까스를 만드실때도 우유를 넣어야 부드워진다고 말씀하신다.

귀염둥이 내 동생은 우유 대장이다. 갓난아기 때부터 가루도 된 분유만 먹었다. 지금은 두 살인데, 우유를 아주 많이 먹는다. 밤중에 500밀리 우유를 먹고자다가 밤마다 이불에 지도를 그린다. 어떤 아저씨께서 내 동생보고 이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젖소에게도 카네이션을 달아주라고 하시면서 꺾꺾 웃으셨다. 이렇게 우리집 식구들은 모두 우유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유를 만들어준 젖소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요즘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도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고 하는데 과일,과자, 초코렛까지 외국에서 사온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몇 달씩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싱싱하지 못할것이다. 언제나 시원하고 고소하고 영양균이 살아 있는 우유를 아주 많이 마셔서 우리 농촌을 잘사는 마을로 만들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젖소를 키우는 농촌 축산업 아저씨들도 부자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다시 한번 ‘고마운 우유’를 생각하면서 이말을 꼭 하고싶다.

우리 국민 모두 우유를 많이 마셔서 농촌과 나아가 우리나라를 잘사는 부자나라로 만들어보자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다.



우유를 먹으면 건강해요

선종인

광주 두암 국교 6년

학교에서 돌아오자 방문앞의 우유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우유 팩이 얼마나 나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방문의 열쇠를 열고 손을 씻고 우유를 단숨에 먹었습니다. 엄마가 놓고 간 우유여서인지 더욱 맛있었습니다. 고소하고 시원한 우유가 목에 넘어갈 때 좀 더 오랫동안 먹고 싶었으나 한개의 우유팩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아쉽지만 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 이 더운날 오후에 이 골목 저 골목을 작은 수레에 우유를 싣고

돌아다닐 것 입니다. 이집 저집 우유를 배달하고 돌아온 엄마는 피곤에 지쳐있지만 돌아와서는 또 집안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엄마를 볼때마다 우유 한 개를 먹는 것이 미안합니다.

우리집은 우유 한 개를 마음껏 마실 수 있을 만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우유는 돈을 낸 사람만 먹는데 나도 먹고 싶었으나 차마 엄마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꿀꺽꿀꺽 마시는 것을 볼때마다 침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짝궁 미선이가 자기 우유를 내게 내밀었습니다.

“나 오늘 우유 먹기가 싫어 너 먹어”

난 머뭇머뭇했습니다. 먹고 싶었지만 조금 창피했습니다.

“그냥 먹어. 아깝지 않아”

미선이는 재촉했습니다. 나는 우유곽을 펼치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갈 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그렇게 맛있니?”

미선이는 우유먹는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난 그 때의 그 우유맛을 잊을 수가 없어 집에 돌아와 엄마께 나도 우유를 먹겠다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어렵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엔 허락 해주셨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나는 우유배달을 해야겠다. 운동도 되고 돈도 벌고 네 우유도 마음껏 마실 수 있을 것 같다.” 엄마는 며칠뒤부터 우유배달 아줌마가 된 것이다.

우리들이 학교에 가면 엄마는 우유 보급소에 들러 우유를 떼어와 각 가정에 배달한 것이다.

그러던 엄마의 이야기는 우유를 먹는 아이들은 모두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엄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우유속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소와 머리를 맑게 해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흔하니까 그렇지 귀하다면 아마 값비싼 약품이 될 것이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어요. 우유 잘먹는 아이는 감기도 걸리지 않는대요” 어떤 아주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우유배달을 하고부터는 난 우유를 하루에 한개씩 꼭꼭 먹을 수 있어 좋지만 엄마가 고생하시는걸 보면 내가 얼른 자라서 엄마를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우유수레를 끌고 이골목 저골목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우유 아줌마!! 이젠 엄마를 부르는 소리 이지만 난 싫지 않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어머니입니다.

“

**우유아줌마! 이
건 우리 엄마를 부
르는 소리이지만 난
싫지않습니다. 오늘
도 우유수레를 끌고
이골목 저골목 다니
시는 우리어머니,
자랑스러운 우리 어
머니.**

”

똑똑한 내아들

이재희

경기안양 관양 국교 1년

나는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만 하여도 우유를 마시지 않았다. 대신 특
쓰는 맛의 음료수를 많이 마셨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가 많이 상하고
빠져 이제는 토끼처럼 커다란 앞니 두개만 남았다. 가족들이 입을 벌이고
“이” 해보라고 하면 창피함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엄마 저 사이다 주세요. 저 콜라 주세요”라고 먼저 외치곤 했다.

그러던 내가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단 음료수 보다 우유를 즐겨
마시게 되었다. 그러한 계기가 된것은 큰 집에 놀러 가서부터였다.

“

엄마는 어제 내가
꿈 이야기를 하시
면서 우유에는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충
치예방에 좋다고 하
셨다.

”

큰 집에서 나와 나이가 같은 건희가 있는데 건희의 책을 빌려 읽게
되었다. 책의 내용은 숲속에 자리잡고 있는 두개의 어린이 마을에 관한
이야기이다. 숲 속 아랫 마을의 옹달샘에서는 단 음료수가 솟아나 그 마을
어린이들은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고 윗 숲속마을 옹달샘에서는 우유가
솟아나 그 곳의 어린이들은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된다.

그런데 윗 숲속마을 어린이들과 아래 숲속마을 어린이들은 같은 나이
이면서도 키와 얼굴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윗 숲속 마을 어린
이들은 키가 크고 얼굴은 왕자님 같았는데 아래 숲속마을 어린이들은 키가
작고 이가 없어 얼굴에 주름살이 많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책을 읽다가 잠들었다. 꿈 속에서 내가 책속의 주인공이 되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마도 책을 읽다가 잠들어서 그런 꿈을 꾸게 되었
나보다.

꿈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키가 작고 검은 이 몇개만 남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평소에 나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승빈이 민영이, 희선이, 경인이 등 많은
친구들이 윗 숲속 마을에서 놀고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친구들을 보고 반가워서 달려가 말을 걸려고 하였으나 친구들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었다.

어!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여도 내가 친구들보다 키가 컸는데
지금 친구들이 나보다 키가 크지않은가? 그리고 친구들의 치아는 하
나같이 희고 고운 것이었다. 내가 친구들 사이로 끼어들려니까 친구들이
나를 밀치면서 “너희 마을로 가서 놀아”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영영 울었다.

엄마께서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나를 흔들며 깨었다. 엄마는 “재희야! 무서운 꿈 꿨니?”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잠들기 전에 내가 읽은 책의 내용과 꿈속 이야기를 엄마께 말씀드렸다. 엄마께서 “그것봐라! 우유를 싫어하고 매일 단 음료수만 찾으니까 그런 꿈을 꾸지”라고 말씀하시며 더 자라고 이불을 덮어주셨다.

그 다음 날부터는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해서 마시는 우유를 집으로 가져오지않고 학교에서 마셨다. 어제까지만해도 우유를 집으로 가져와 동생에게 마시게 하곤했다.

엄마는 어제 내가 꾸 꿈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유에는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충치 예방에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이다, 콜라 같은 음료수에는 탄산가스가 많이 들어있어 충치가 생기기 쉽다고 하셨다.

아빠가 일찍 퇴근하여 들어오셨다. 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께 들은 것을 아빠께 그대로 말했더니 아빠께서 “우리 재희가 국민학생이 되어서 모르는게 없네”하시면서 “그래 우유를 많이 마시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지만 어렵게 축산업을 하시는 아저씨들을 돕는 길이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일석이조인 셈이네요, 그랬더니 아빠께서 웃으시며 “그래 맞다. 그런데 너 일석이조의 뜻이나 알고 말했니”하시는 것이다.

나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텔레비전 코메디에서 일석이조”라는 말이 나와서 그냥 말해 본거예요, 했더니 아빠께서 더욱 크게 웃으시며 “이 아빠가 재희에게 많이 배워야겠는 걸”하고 말씀하셨다.

부엌에서 듣고 계시던 엄마께서 “어이구, 똑똑한 내 아들 더욱 건강해 지려면 우유를 마셔야지?”하시면서 아빠 우유와 내 우유를 예쁜 유리 컵에 담아가지고 나오셨다.

